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 영 선 호남권 연구센터장

“3D 융합산업 발굴하는 데 앞장”

PHOTONICS PEOPLE

“2011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해 R&D 특구지정 등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때 보다 높을 때입니다. 광산업과 연계한 3D융합산업 육성과 차세대 광주소리문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영선(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 연구센터장(이하 ETRI 호남권 센터장)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3D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경(대구·경북)권과도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 퇴보하지 않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3D 융합산업과 소리사업이 신성장사업의 엔진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이들 산업은 연구개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용창출로도 이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소리산업의 경우 광주광역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과제를 조만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또 “호남은 ‘명창의 고장’이니 만큼 소리산업의 실용화 가능성은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면서 “지역 내 관련 콘텐츠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자원을 어떻게 컨버전스화 하느냐가 남아 있는 숙제”라고 밝혔다. 호남권연구센터는 2004년 말 광주첨단산업단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최첨단 설비와 장비를 갖춘 연구센터를 완공했으며, 2009년 광역경제권에 따라 전남, 전북지역의 IT산업까지 아울러 대형연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올해부터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기술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융합생산센터 운영기반 구축 및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를 위해 인프라구축, 기술사업화 촉진, 글로벌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협의회가 구축돼 있는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를 착수해 나가겠다”면서 “산·학·연과 지자체가 하나로 융합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파악, 보완해 이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직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호남권센터가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김 센터장은 전남 강진 출생으로 고려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ETRI 품질보증연구실장, 트래픽제어연구실장, 교환방식연구실장, 기술기획실장, 인터넷기술연구부장, 네트워크 연구그룹장(부장) 등 ETRI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APCC(아시아 태평양 컴퓨터·정보통신학술대회) 조정위원회와 JCCI(통신정보합동학술대회) 조정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가R&D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고객모니터링 위원 등을 맡고 있다.